

廬隱 소설과 죽음

- 인물의 죽음을 중심으로 -

김희진*

◁ 목 차 ▷

- I. 들어가기
 - II. 廬隱과 죽음의 관련성
 - 1. 성장 환경과 주변인들의 죽음
 - 2. 비극적 인생관
 - III. 죽음의 양상과 원인
 - 1. 봉건적 가부장 질서의 억압에 의한 죽음
 - 2. 자기구원으로서 역설적 죽음
 - 3. 궁핍한 삶에서 초래된 어린 소녀의 죽음
 - 4. 폭력에 의한 정치·종교 활동가의 희생적 죽음
 - IV. 나가기: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와 현실인식
-

I. 들어가기

중국에서 여성해방의 구호는五四新문화운동을 통해 제기되었다.五四운동을 전후로 각종 신문이나 잡지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고 서구의 여성해방이론과 저작들을 소개하면서 이에 관한 의견 또는 건의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여성해방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었고¹⁾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회적 참여와 탐색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대거 등장한 1세대 여성작가 廬隱, 陳衡哲, 冰心, 石評梅, 馮沅君, 凌淑華, 蘇雪林²⁾ 등은 대부분

* 극동대학교 중국항공운항서비스학과 조교수

- 1) 전중제·손창희 주편 《인물로 보는 중국현대소설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2002), 151쪽 참조.
- 2) 楊義 《中國現代小說史》 I, (人民文學出版社, 1986), 214쪽에서 1세대 여성작가를 출현시기와 창작경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陳衡哲, 謝冰心] [廬隱, 石評

北京을 중심으로 근대 교육을 받으며 서구 사상을 접한 엘리트 신여성들로 당대의 여성 현실 속에서 여성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주력하였다. 廬隱(1899-1934) 역시 1세대 여성작가로 五四시기에 冰心과 더불어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1921년 《소설월보(小說月報)》 제12권2호에 〈어떤 저작가 一個著作家〉로 정식 등단한 이래 1934년 삶을 마치기까지 13-4년간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통해 소설집과 산문집 등 총11권을 남겼다. 1세대 다른 여성작가들과 마찬가지로 廬隱은 개성해방, 자유연애, 자유결혼 등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가부장제 아래 여성의 비극적 삶을 고발하고 여성해방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제소설을 통해 봉건예교, 군벌정부, 물질만능주의, 관료들의 부패, 노동자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회 현실을 비판하였다.³⁾ 이처럼 廬隱은 文學研究會의 일원으로 반봉건과 개성 해방 그리고 남녀평등이라는 五四정신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실천한 문인이었으나 중국현대문학사에서 50여 년간 소외된 채 1980년 이후 1936년에 절판되었던 작품들이 출판되며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⁴⁾ 신시기 이후 서구 페미니즘이 유입되고 女性文學과 女性批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廬隱의 삶과 문학에 대한 연구 및 평가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성과물도 등장하였다.⁵⁾ 국내의 연구 업적들은 주로 페미니즘 시각에서 작가 廬隱의 삶과 작품을 비평하거나 1920·30년대 여성 작가연구 중 일부분으로 고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⁶⁾

梅] (馮沅君, 凌淑華, 蘇雪林)

- 3) 전중제·손창희 주편 《인물로 보는 중국현대소설의 이해》, 152-175쪽 참조.
- 4) 박종숙 〈재조명되는 廬隱의 소설〉: 《중어중문학》 26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0, 433쪽 참조.
- 5) 孟悅·戴錦華 著 《浮出歷史地表》, (河南人民出版社 1989), 劉思謙 《娜拉吉說—現代女作家心路紀程》 (上海文藝出版社 1993), 徐岱 《邊緣敘事—20世紀中國女性小說個案批評》 (學林出版社 2002), 喬以綱 《低吟高歌—20世紀中國女性文學論》 (南開大學出版社 1998), 《多彩的旋律—中國女性文學主題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03), 《中國女性與文學》 (南開大學出版社 2004), 周海波·孫婧合著 《尋找失去的天空—中國現代女性文學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6) 김연숙, 《廬隱의 단편소설연구: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 석사논문, 1999.), 이은희 《廬隱의 글쓰기 연구: 《海濱故人》을 중심으로》 (숭실대 중어중문학과 석사논문, 2006), 하수진 《廬隱의 '人生小說' 研究》 (한국외대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 석사논문, 2007), 김은희 《廬隱의 소설 小攷》: 《중국어문학지》 제1집, 중국어문학회, 1994, 조경희, 〈1920년대 廬隱소설과 페미니즘〉: 《중국어문논총》 제14집, 중국어문연구회, 1998., 박종숙, 〈재조명되는 廬隱의 소설〉: 《중어중문학》 26집, 한국

五四시기의 대표적 여성작가이자 교사, 지식인으로 활동하였던 廬隱은 자신이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역사와 사회 속에서 적응해 가는 인물 유형들, 즉 사건이나 정황보다는 그 속에서 인간이 적응해 가는 내면세계를 표현하였고⁷⁾ 인간의 다양한 삶과 죽음을 함께 탐색하였다. 이렇듯 그의 소설 중 죽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주인공들의 인식처로서 유한하고 무상한 현실 삶이 아닌 영원하고 한결같은 죽음이 등장하고 있다.⁸⁾ 그러나 기존 연구 성과 중 죽음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⁹⁾ 드물게 발견되는 죽음과 관련된 연구 성과 역시 여성주의 시각에서 비극성이나 비애와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다.¹⁰⁾ 이는 작가가 여성이고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적 성향에 지나치게 주목하여 여성주의 비평을 위주로 전개하거나 죽음을 단순하게 작품의 결말로 분석하였던 선행연구들의 비평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廬隱의 작품에 빈번히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廬隱 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이라는 모티브에 집중하여 이토록 죽음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 죽음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작가 廬隱의 삶과 작품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인생을 위한 예술'을 주장한 문학연구회원으로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던 작가의 현실인식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작가의 태도 및 인식 나아가 정신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며 죽음과 관련된 당대의 현실과 세계를 재인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작품에 등장하는 죽음의 연원

중어중문학회, 2000, 박종숙 〈루인廬隱소설의 비극적 진실〉: 《문학마을》 제4권 4호 통권 16호, 문학마을, 2003, 홍지순 〈현대 중국 신여성 형상의 변천〉: 《중국현대문학》 제43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7. 김은희·최은정 譯, 《中國現代女性小說名作選-1920年代 女性作家短篇選》(語文學社, 2005), 남희정, 《廬隱의 단편소설의 비극성 연구》(고려대학교원 중일어문과 석사논문 2010)

7) 廬云峰著 《中國現代女性文學專題研究》: 「廬隱是一個自傳型作家, 從很多作品描寫的主人公身上, 都能看到作家自己的身世和影子。」(遼寧大學出版社, 2006), 77쪽.

8) 박종숙 〈재조명되는 廬隱의 소설〉: 《중어중문학》 26집, 450쪽 참조.

9) 박종숙 〈재조명되는 廬隱의 소설〉, 445-453쪽에서 廬隱은 인생 자체의 비극적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글쓰기를 통해 위안 받는 한편 죽음에 대한 찬미를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10) 남희정 《廬隱의 단편소설의 비극성연구》(고려대학교원 중일어문과 2010), III장 비극성의 재현양상에서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

을 규명함에 작가의 생애 및 세계관과 연관 지어 살펴보고, 작품에 드러나는 죽음의 양상을 유형과 원인별로 구분하여 당대의 현실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고찰하기로 하겠다.

II. 廬隱과 죽음의 관련성

1. 성장 환경과 주변인들의 죽음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문학에서 죽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작품에 나타나는 죽음의 원인과 의미는 그 시대의 삶을 말하고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작품에 죽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단순한 삶의 단절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파악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¹¹⁾ 문학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끼치는 영향, 그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 등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소설 중 죽음은 작가의 창작심리와 작품을 수용한 독자들의 삶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¹²⁾

중국현대문학사상 廬隱의 소설이 홀시 된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소설의 비극성에 있다. '新時期 文學時期'인 1980년대 이래 五四 이후 거의 모든 중국 작가와 작품들이 새롭게 출판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冰心이나 丁玲에 비해 廬隱의 작품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녀가 밝히고 있는 인생의 진실이 희망이 아닌 절망, 긍정이 아닌 부정, 심지어 삶이 아닌 죽음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¹³⁾ 廬隱의 소설 중 여러 곳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고뇌와 갈등으로 괴로워하다 病死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¹⁴⁾ 갈등과 대결의 해결책으로 죽음이 자주 등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廬隱은 죽음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희망하지만 작가 스스로 자살할 용기가 없

11) 이인복 《죽음과 구원과 문학적 성찰》, (성요셉출판사, 1989), 280쪽 참조.

12) 유금호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연구》, (동천사, 1988.), 4-5쪽 참조.

13) 박종숙 〈재조명되는 廬隱의 소설〉: 《중어중문학》 26집, 445쪽 참조.

기 때문에 인물의 病死를 등장시킨다고 고백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자살을 통한 죽음일지라도 자살의 방법은 총이나 칼의 사용이 아닌 투신자살을 선택한다고 도¹⁵⁾ 하였다. 이처럼 작품에서 극단적 죽음으로서 결말을 처리하는 작가의 성향에 대해 北京女子高師學校 동창이자 친구인 蘇雪林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廬隱의 작품에는 항상 비애, 고민, 세상에 대한 분노, 옹지 못한 것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 세상사에 대해서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고, 세상 사람에 대해서 그 어느 한 사람도 만족하는 바가 없었다.¹⁶⁾

14) 廬隱 소설 중 죽음이 등장하는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명	수록 작품집	죽음과 관련된 인물	죽음의 유형	죽음의 원인
一個著作家	海濱故人, 1925	浮塵/ 沁芬	병사/ 자살	강제결혼
一封信	海濱故人, 1925	梅生	타살	빈곤, 학대
餘淚	海濱故人, 1925	白教師	타살	폭력에 의한 희생
或人的悲哀	海濱故人, 1925	亞俠	자살	의지에 의한 자살
麗石的日記	海濱故人, 1925	麗石	자살	의지에 의한 자살
海濱故人	海濱故人, 1925	沅青	자살 암시	내적 고민
淪落	海濱故人, 1925	松文	병사	이중적 性 윤리
傍晚的來客	海濱故人, 1925	張媽	살인	강제결혼, 학대
西窗風雨	曼麗, 1928	壽兒	병사	빈곤, 학대
血泊中的英雄	曼麗, 1928	志玄	타살	폭력에 의한 희생
父親	靈海潮汐, 1931	生母, 庶母	병사	강제결혼
藍田的懺悔錄	靈海潮汐, 1931	藍田	병사	현실에 대한 실망
象牙戒指	象牙戒指, 1934	曹子卿	병사	求愛의 실패

15) 이은희 《廬隱의 글쓰기 연구: 《海濱故人》을 중심으로》, 77쪽 참조.

반면 茅盾은 五四 문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다 五四운동의 퇴조에 따라 盧隱의 소설도 방향을 잃고 표류하면서 오직 감정과 이성의 충돌 아래 비관한 채 고민 밖에 모르는 정체된 소설가가 되어버렸다고 비평하였다.¹⁷⁾ 문학연구회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작가이기에 五四 퇴조기라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았겠으나 이전부터 盧隱은 여러 작품에서 이미 죽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蘇雪林的 언급처럼 스스로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여겼던 작가의 삶과 내면을 통해 직접적인 원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盧隱은 1899년에 지금의 福州인 福建省의 부유한 舉人집안에서 출생하였다.¹⁸⁾ 마침 태어난 날에 외조모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유독 盧隱을 원망하고 집안에서는 불길한 아이로 여겨 환영받지 못하였다. 출생 직후부터 유모 집에서 양육되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6세 되던 해에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北京의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며 성장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盧隱을 정규학교에 입학시키는 대신 가정에서 이모로부터 《三字經》·《女四書》 등 전통 부녀교육서를 학습시켰는데, 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전통 부녀교육서를 강제로 암기시키는 것으로, 과제를 못하면 끼니를 거르게 하거나 체벌을 가하는 강압적인 것이었다.

어머니는 변함없이 내게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대하였고, 마음으로부터 나를 증오하였다. 나도 엄마가 두려웠다. 밤에는 하녀들과 함께 지저분한 방에서 잠갔고, 낮에는 화원에 숨어있었다. 이 때 내 마음 속에는 사랑도 희망도 없이 단지 원망뿐 이었다. 삼촌 집에 경사가 있거나 손님 초대가 있을 때면 어머니는 항상 나를 다른 방에 가두고서 구경하러 나오지 못하게 했고, 나의 형편없는 몰골이 자신들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빠와 여동생들은 천사처럼 단장하

16) 蘇雪林 《二三十年代作家與作品》: 「盧隱的作品, 總是充滿了悲哀, 苦悶, 憤世, 嫉邪, 視世間事無一當意, 世間人無一愜心。」(廣東出版社, 1980). 이은희 《盧隱의 글쓰기 연구: 《海濱故人》을 중심으로》, 77쪽 재인용.

17) 茅盾, 《盧隱論》: 「我們讀了盧隱的全部著作, 總覺得她的題材的範圍很仄狹; 她給我們看的, 只不過是她自己, 她的愛人, 她的朋友, — 她的作品帶着很濃厚的自叙傳的性質。」, (肖鳳 編 《盧隱傳》,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2), 139쪽.

18) 盧隱의 출생년도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1897년 출생: 黃盧隱 《盧隱自傳》(上海: 第一出版社, 1934), 肖鳳 著 《黃盧隱》(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2) ② 1898년 출생: 《美文·大家選》(2010년 14기) ③ 1899년 출생: 肖鳳·孫可編 《盧隱選集》(天津: 白花文藝出版社, 1983)

고 사람들 사이에서 날아다녔다.19)

유독 그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냉대는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경사가 있거나 손님이 방문했는데도 체면상의 이유로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작가의 고백으로 미루어 볼 때, 유달리 차별 대우가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1909년에 廬隱은 미국계 교회학교인 北京 慕貞學院小學部에 입학하여 5년간 기숙생활하며 교육을 받는다. 기독교 미션계학교로 특별히 학비가 저렴하였기에 학생들 대부분이 시골의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廬隱 역시 오로지 저렴한 학비로 인해 입학하였다.

아! 그때 내 심약한 마음은 얼마나 공허했는지, 어머니는 날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 역시 날 외면했고 내 병의 고통은 나를 지치게 했다. 난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울었고 감격해서 울었으며 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20)

가족들에게서 소외된 채 절망과 회의에 빠져있던 廬隱은 기독교 미션계학교에 입학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심한 종기로 인해 불구가 될 줄 알았던 발의 상처가 기독교 선교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자 심신의 위안을 얻으며 바로 기독교에 귀의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의 기독교 입교에 대해 「그들은 종교 선교의 절대적 신앙심을 지니고서, 이익을 쫓아다니는 종교 무리이다.....어린 시절 나는 예수께 의지하였다. 원래 철저히 못한 신앙이라 차츰차츰 무너졌다.(他們是抱着宣傳宗教的絕大信心,來吸收這些爲了利益而信教的教徒.....在童年的時候,我飯依了耶穌.我本來不徹底的信仰,便漸漸的趨于破產。)」21)라며 스스로 부정했

19) 廬隱 〈廬隱自傳·童年時代〉: 「母親永遠對我是冰霜滿面的,她是從心底憎厭了我,而我也真怕了她。夜裡和女僕同睡在一個骯髒的房裡,白天呢,就躲在花園裡。這時我的心,沒有愛,沒有希望,只有怨恨。每逢舅舅家裡有什麼喜事,或者請客,母親總把我鎖在另外一個院子裏,不許我出來見人,說我這種不要好的嘴臉,會使她們丟臉,而哥哥妹妹們打扮得像小天使般的,在人群裡飛翔。」《廬隱文集》第3卷,(時代文藝出版社 2000년), 1637쪽.

20) 廬隱 〈廬隱自傳·童年時代〉: 「唉!我那時弱小的心,是多么空虛,我的母親不愛我,我的兄弟姊妹也都拋棄我,我的病痛磨折我,因此我爲了這些而哭,我感動的哭,我這空虛的心,在這時便接受了上帝。」《廬隱文集》第3卷, 1644쪽.

21) 廬隱 〈我的宗教〉: 《廬隱文集》第3卷, 576쪽.

으나 여러 작품에서 당시 받은 기독교 교육의 영향과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어린 아이는 성장 발달 초기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무수히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 모두 합쳐져 어떤 공포의 심리적 망을 구성한다고 한다.²²⁾ 유년기 아버지의 사망, 어머니와 가족들의 외면 그리고 소외와 공포는 죽음의 충동을 느끼게 했고 소설에서 죽음의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²³⁾ 이런 까닭에 盧隱의 많은 작품 중 어머니와 가족은 등장하지 않고, 모성에 또는 가족애를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정신적 상처와 갈등·고독·비애로 가득 찬 자아의 형상과 죽음의 결말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²⁴⁾ 있다.

1923년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던 연인 郭夢良과 결혼한다. 이 때 郭夢良은 비록 집안의 강요에 의한 결혼이었지만 이미 처자식이 있는 상태였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고자 기혼자 郭夢良과의 결혼을 강행한다.²⁵⁾ 그러나 1925년 10월 남편 郭은 태어난 지 10개월 된 딸을 낳긴 채 病死하고 만다. 이후 1928년에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文友인 石評梅가 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2-3달 후 다시 그녀의 친오빠가 돌연 사망하였다.

石評梅가 죽은 후, 나는 돌아갈 집을 잃은 방랑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반자 없는 장거리 여행자가 되었다. 이때 나는 비애의 바다에 빠져서 오로지 좀 더 빨리 죽기만을 희망하였다. 날마다 술과 담배에 빠져 있었고 습관적 자살을 시도했다.²⁶⁾

22) Calvis. S. Hall ·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1996), 116쪽 참조.

23) 童慶炳·程正民 《文藝心理學教程》: 「童年經驗是指一个人在童年(包括從幼年到少年)的生活經歷中所獲得的心理體驗的總和。包括童年時各種感受、印象、記憶、情感、知識、意志等。」,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1), 92쪽.

24) 박종숙 〈재조명되는 盧隱의 소설〉, 448쪽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것 외에도 외삼촌이나 이모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데 「그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그녀 또한 가족을 그리 사랑했던 것 같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25) 謝冰瑩 〈黃盧隱〉: 「她不顧社會上一切的批評, 她始終熱愛着夢良, 那怕物質生活苦得連吃兩頓飯都成了問題, 她也願意和夢良到處飄泊, 過着她們的精神自由生活。」, (肖鳳·孫可 編 《盧隱選集》,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83), 477쪽.

26) 盧隱 〈思想的轉變〉: 「從評梅死後, 我不但是一個沒有家可歸的飄泊人兒, 同是也是一個無伴的長途旅行者。這時節我被浸在悲哀的海裏, 我但愿早點死去, 我天天喝酒吸煙, 我試作着慢性的自殺。」《盧隱文集》第3卷, 1679쪽.

1921년 등단 이후 1934년 사망하기까지 작가 廬隱의 삶에는 유년시기에 겪었던 부친의 죽음을 시작으로 1923년 어머니의 죽음, 1925년 남편의 죽음, 1928년 절친했던 친구의 죽음과 오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계속된 죽음이 있었다. 더구나 남편과 사별 후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했던 친구 石評梅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허무와 상실감에서 술·담배에 의지하다 끝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서 비극적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가족·지인들의 연이은 죽음과 직면해야만 했던 작가 廬隱에게 죽음은 고통 자체이자 동시에 실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면과 작품에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 다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주변인들의 지속된 죽음과 그로 인한 충격에서 방황하였던 廬隱은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현실을 부정하다 못해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에서 죽음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죽음과 가까워지고 죽음으로 경도하였던 것이다.

2. 비극적 인생관

廬隱이 출생·성장한 시기는 중국 근현대사에서 혼돈과 비극이 점철된 시기였다. 戊戌變法の 실패, 義和團의 난, 서구 제국주의와 청 정부의 불평등조약 체결, 辛亥革命의 실패, 軍閥의 할거, 일본의 침략 등으로 인해 중국은 四分五裂 상태였으며 경제적 위기는 물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五四新문화운동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가치관은 新舊의 충돌로 혼란스러웠고, 五四퇴조 후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비관·실망의 정서도 심해졌다.

20세기 초, 각종의 서구 사상과 사조가 중국으로 한꺼번에 유입되어 중국의 전통 문학 관념과 심미의식에 충격을 주었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민족, 사회, 개인들의 생존위기는 五四작가들에게 니체, 샤르트르와 쇼펜하우어 등의 철학사상에 공감하고 현실적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지니게 만들었다.²⁷⁾

27) 廬云峰 著 《中國現代女性文學專題研究》: 「20世紀初期, 各種西方思潮涌入中國, 沖擊着中國傳統的文學觀念和民族審美意識, 日益嚴峻的民族、社會、個體的生存危機, 使五四作家開始認同尼、薩特和叔本華等人的哲學思想, 並成了對現實人生的悲劇性認識。」, (遼寧大學出版社 2006), 147쪽.

특히 盧隱은 五四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문단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五四이후 중국 사회에 남겨진 희망과 실망, 굴욕과 허무, 기쁨과 슬픔 등 비애 정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五四운동이 퇴조하기 이전에 쓴 盧隱의 작품들 속에 이미 비애의 분위기가 가득하며, 五四 이후 盧隱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한 것은 茅盾이 지적한 것처럼 단순히 감정과 이성의 충돌 아래 비관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만은 결코 아니다. 盧隱의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근원적인 인간 실존의 허무성이다. 그녀의 소설에는 가을바람, 눈보라, 해질녘, 흐린 날, 등 우울과 불안, 불행과 절망의 이미지로 가득하다.²⁸⁾ 이렇듯 우울·비관적 정서를 지니게 된 배경에 대해 盧隱은 散文〈장미의 가시 玫瑰的刺〉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현재 나의 불안은 어머니의 태내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이러한 불안한 개성을 여태까지 살아온 생활 속에 한시도 드러내지 않은 적이 없다.나는 어릴 때부터 부평초처럼 떠도는 생활을 좋아했고 어떤 곳에서도라도 반 년 이상 살면 싫증나서 어떻게 해서든 살 곳을 바꿔야 마음이 편해졌다.²⁹⁾

자신의 우울·불안한 기질이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유래하였음을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외할머니가 사망한 당일에 출생하였다. 그렇기에 새 생명을 출산하는 그녀의 어머니나 태 속의 어린 생명 모두 극심한 불안과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런 까닭으로 盧隱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길한 아이, 불행의 化身으로 여겨져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학대 속에서 나는 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동시에 생명에 대해 혐오하기 시작했다. 내 작은 영혼 속에 비록 자살에 대한 분명한 의식은 없었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죽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보다는 행복하리라고.³⁰⁾

28) 박중숙 〈재조명되는 盧隱의 小說〉, 446-447쪽 참조.

29) 盧隱 〈玫瑰的刺〉: 「我的不安于現在, 可說是從娘胎 里帶來的, 而且无時无刻不想把這種个性表現在各种生活上, ……我從小就喜歡飄萍浪迹般的生活, 無論在什么地方住上半年就覺得發膩, 總得想法子換个地方才好」《盧隱文集》第3卷, 1216쪽.

작가 廬隱의 불행한 성장환경과 경험들은 이후 쇼펜하우어, 니체의 비관·염세적 사상에 더욱 공감하도록 작용하였으며 인생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게 작용하였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읽었을 때, 그의 “인생은 고힘(苦海)와도 같다”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때문에 이때 비애는 내 사상의 뼈대가 되었으며, 무엇이든 내 회색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오면 전부 비애의 색채로 물들어 버렸다. …… 나아 말로 비애의 찬미자이다.³¹⁾

본인의 고백처럼 대학시절 탐독했던 쇼펜하우어, 니체를 비롯한 독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 인생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더욱 비극적 태도로 수용·인식하였다. 廬隱의 작품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비관적 시선으로 현실과 인생을 바라보며 현실의 구속을 벗어나 죽음을 동경하고 있다. 여러 작품 속에서 「인생에서 죽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并且人生出了死, 沒有更比較大的事情)」, 「지금 나는 죽음만을 바랄 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이다! 인간의 삶은 정말 무섭도록 허무하다!(我現在只求死, 好像死比生要樂得多呢! 人間實在是虛偽得可怕!)」, 「인간의 마지막 길인 죽음을 생각한다.(想到人的末路—死。)」 죽음에 대한 강한 편향성을 드러내며 죽음을 이상향이자 내세 공간으로 인식하고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 위로받는 안식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현실 삶과 인생을 고통스럽고 비관적 것으로 여기고 현실과의 대립에 따른 갈등·충돌에서 오는 고통을 죽음으로 극복하려는 자세이다.

이처럼 五四 퇴조기라는 시대적 정서 아래, 작가 廬隱은 본인의 불행한 성장기와 더욱 공감할 수 있었던 비관적 인식을 특징으로 하는 쇼펜하우어 철학³²⁾의 영향을 적극 수용하며 비극적 인생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 진다. 廬隱의 비극적 세

30) 廬隱 〈廬隱自傳·童年時代〉: 「在這種虐待下, 我除了哭, 竟想不出別的辦法, 同時我對於生命, 開始了厭惡. 在我小小的心靈中, 雖然沒有自殺的清楚意識, 不過我也模糊的覺得, 假使死了, 也許比這活着快樂吧。」《廬隱文集》第3卷, 524쪽.

31) 廬隱 〈思想的轉變〉: 「因爲我正讀叔本華的哲學, 對於他的人世—苦海也, 這句話服膺甚深, 所以這時候悲哀便成了我思想的骨子. 無論什麼東西, 到了我這灰色的眼睛裏, 便都要染上悲哀的色調了. ……我簡直是悲傷的嘆美者。」《廬隱文集》第3卷, 1677쪽.

32) 盧云峰著 《中國現代女性文學專題研究》: 「叔本華認爲, 一切生命的本質就是苦惱, 沒有任何事物值得我們去奮鬥、努力和爭取, 一切的財寶都是空無的, 這個世界歸於破滅……現實唯一的生存方式, 只是所謂“剎那的現在”的現象,」, 147쪽.

계관과 인생관은 현실을 고통스럽고 비관적인 곳으로 여겼으며 현실과의 갈등·충돌에서 비롯되는 우울, 고통을 벗어나 인식치인 죽음으로 향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한 지향을 통해 비극적 현실 세계를 벗어나 위로받으려 하였고 현실의 구속을 극복하려 하였다.

Ⅲ. 죽음의 양상과 원인

1. 봉건적 가부장 질서의 억압에 의한 죽음

20세기 초 중국 내부에서 전통적 유교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서양의 문화·사상을 배우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서구사조의 영향 아래 중국 여성은 새로운 사회적 존재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五四운동을 통해 제기된 자유연애, 개성해방, 결혼의 자주성 추구 등은 봉건적 사회체제와 가부장 질서를 반대하고 남녀 평등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교육의 혜택을 얻은 여성들은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서 능력을 발휘하였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극소수 지식인 여성에 국한된 것이었다. 중국 사회 각 방면에 뿌리 깊은 봉건의식은 여전히 여성의 삶을 억압하였고 가부장적 지배구조는 여성을 구속하고 있었다. 비록 사회 진출이라는 기회를 얻었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가정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廬隱의 〈어느 달밤의 인상 一個月夜裏的印象〉, 〈어떤 저작가 一个著作家〉, 〈저녁 무렵의 손님 傍晚的來客〉, 〈藍田의 참회록 藍田的懺悔錄〉, 〈윤락 淪落〉, 〈부친 父親〉 등의 여성 인물들은 대부분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강요가 아닌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혼을 희망하나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결혼이란 집안에서 부여하는 당위적 의무이며,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주체적 각성을 시작한 여성들은 봉건적인 강제결혼을 부당한 것으로 여겼고 사랑 없는 결혼을 부정하며,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을 통해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길 간절히 희망하였다.

〈어느 달밤의 인상 一個月夜裏的印象〉³³⁾에는 봉건적 가부장제에서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이 좌절된 여성의 죽음이 등장한다. 양가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남녀가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들 의지대로 자유결혼 후 아이까지 낳지만 결국 자유연애와 결혼을 용납하지 않는 봉건 혼인제도의 구속으로 인해, 여성은 다른 남성의 첩으로 전락하고 남성은 가문의 代를 잇기 위해 새장가를 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만다. 작품 중 ‘사생아(私生子)’를 낳은 여성은 봉건적 인습과 가부장제의 구속에 의해 자유연애와 결혼이 좌절되자 절망한 채 죽음에 이르고 만다.

1921년 2월 문단에 작가로서 廬隱의 이름을 알린 소설 〈어떤 저작가 一个著作家〉에는 ‘包辦婚姻’이라는 강제결혼으로 인해 희생되는 젊은 남녀의 죽음이 등장한다. 부모 형제 없는 가난한 청년작가인 邵浮塵에게 어느 날 5년 전 헤어진 여인 沁芬이 찾아온다. 서로 사랑했지만 부유한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그의 곁을 떠났던 沁芬은 경제적 풍요를 얻은 대신 애정 없는 결혼생활로 인해 연인 邵浮塵을 잊지 못한 채 사진과 편지를 꺼내 보며 그리워하다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거부하는 邵浮塵의 모습에 충격 받은 沁芬은 결국 병을 얻어 죽음에 이른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연인 邵浮塵을 향해 자신의 사랑과 영혼을 다시 돌려 주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죽는다.

나는 불행해! 생명과 사랑이 강제로 돈에 팔렸어요! 그러나 나의 육체는 팔 수 없어요! 나의 영혼은 여전히 온전히 전부 당신 것이기 때문에...(중략)..., 붉은 피가 흘러나와 그의 흰색 상의와 바지를 적셨다. 그는 크게 웃으며 말하길; “沁芬!沁芬! 나도 네게 줄 피가 있어!” 의사와 간호사들은 문을 열고 들어와 모두 이 청년 작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단지 고개를 가로저으며 탄식할 뿐이었다. 갑자기 그가 튀어 올랐다가 다시 쓰러져 넘어졌다. 그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의사와 간호사는 그를 침상 위에 누웠고 맥박은 이미 미약해졌다! 다음 날 아침 6시, 불쌍한 이 청년 작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沁芬을 찾아 떠나 가버렸다!³⁴⁾

33) 廬隱《廬隱小說全集》(時代文藝出版社, 1997), 558-563쪽 참조.

34) 廬隱 〈一个著作家〉: 「我不幸!生命和愛情,被金錢強買去!但是我的形體是沒法子賣了!我的靈魂仍舊完完全全交還你!……紅的血出來了,染紅了他的白色小褂和襪子,他大笑起來道:「沁芬!沁芬!我也有血給你!」醫生和看護婦開了門進來,大家都失望對著這少年著作家邵浮塵只是搖頭,歎息!他忽地跳了起來,又摔倒了,他不能動了.醫生和看護婦把他扶在床上,脈息已經很微弱了!第二天早晨六點鐘的時候,這個可憐的少年著作家,也離開這世界,去找他的沁芬去了!」《廬隱小說全集》, 1-7쪽.

蕊芬의 사망소식을 접한 邵浮塵 역시 세상과의 소통을 차단한 채 정신병원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살한다. 〈저녁 무렵의 손님 傍晚的來客〉³⁵⁾에는 억압된 결혼생활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는 여성이 등장한다. 張媽는 장애인 남편과의 강제결혼으로 인해 시누이 松姑의 감시와 의심을 받으며 감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던 중 고향에서 함께 성장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劉福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張媽는 몰래 劉福을 보러 가고 싶은 욕망에서 늘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히던 시누이 松姑를 우물로 밀어 넣어 죽인다. 가부장 질서의 강제결혼과 시집살이의 고통에서 초래된 억압과 분노가 타살로 표출되면서 봉건적 인습의 피해자였던 張媽가 살인자로 전락하는 비극적 상황이다. 그렇다고 자유로운 사랑과 결혼을 추구한 여성이 모두 성공해서 행복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구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고 교육을 통해 각성하기 시작한 신여성일지라도 봉건 가부장적 사회질서의 높은 장벽을 뛰어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무리 자유연애를 희망하였을 지라도 중국사회는 새로운 연애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았다. 1927년 발표된 소설 〈藍田의 참회록 藍田的懺悔錄〉에서 藍田은 집안에서 정한 결혼을 거부하고 자유연애를 추구하나 오히려 남성로부터 육체와 정신을 농락당한 후 버림당하자 그 충격으로 인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여성운동에도 참여하였던 신여성 藍田은 가출하면서까지 자유연애와 결혼을 강하게 희망하였으나 위선적인 남성들의 성적 욕망에 휘둘려 비참한 운명으로 추락하고 만다. 결국 가부장제의 규범과 질서가 강요하는 왜곡된 성윤리와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고 있다. 그 과정을 일기형식의 참회록으로 기록하며 자유연애의 허상과 가부장제하 결혼제도의 모순 그리고 인간의 속성, 남성의 비열함 등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녀가 자신의 참회록을 내게 건네주었을 시기에는, 병세가 이미 위중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그녀의 병 대부분이 정신적인 것으로,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터놓고 전부 털어놓지 않는다면, 건강하게 회복된 신체를 희망하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藍田의 최후를 나는 감히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은 자신의 병이 호전될 리 없을 거라 여겼기에 이 참회록을 내게 건네주었을지도 모르겠다.³⁶⁾

35) 廬隱 〈傍晚的來客〉: 《廬隱小說全集》, 567-569쪽.

36) 廬隱 〈藍田的懺悔錄〉: 「当她將她的《懺悔錄》交給我的時候, 病象已很危險, 不過医生

藍田에게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으나, 남성의 배신으로 좌절되고 만다. 자유연애라는 낭만적 사랑과 결혼을 추구했던 그녀에게 이러한 좌절은 인간다운 삶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연애를 허락하지 않는 봉건적 결혼제도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도구로 인식하는 남성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의 억압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생존을 거부한다. 이같은 죽음은 여성에게 불합리했던 당대의 비극적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윤락 淪落〉 역시 오로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봉건적 貞操 규범으로 인해 파멸에 빠지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그에게 점점 松文을 경멸하는 생각이 생겼고, 자신의 순결한 애정은 청신하고 아름다운 처녀에게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彬彩는 본래 병원으로 가서 그녀를 간호하고 싶었으나, 친구들의 냉대와 조소가 두려워 그녀의 마음을 일순간에 냉정하게 하였다. 비록 마음으로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만, 체면상 그녀와 친근해지고 싶지는 않았다. 37)

바다에서 의사당할 위기에 처한 松文을 해군 부관 趙海能이 구한다. 유부남인 그는 생명의 은인을 빙자하여 松文에게 애정으로 강요하고 사귀는 남성과 헤어질 것을 명령하며 그녀의 삶을 간섭한다.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松文은 자신에게 求愛하는 청년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나 그는 松文이 더 이상 순결한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매우 실망하여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 게다가 松文의 주변 사람들까지 이러한 그녀의 과거를 조롱하며 냉대하자 죽음과 같은 파멸에 빠지고 만다.

방안은 침울하고 적막으로 가득했고 마치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려는 듯 썰렁하

說她的病，可以說大部分是在精神上，不過因精神而影響身體，若果不謀開展心胸，那麼希望身體的恢復健康，也不可能唉!..... 藍田的末路，我不敢深想，她自己是料定她這病不會好，所以才把這《忏悔錄》交給我。」《廬隱小說全集》，244-255쪽.

37) 廬隱〈淪落〉: 「他漸漸生了鄙薄松文的念頭，他想自己純潔的愛情，只能給那青春而美麗的貞女。.....彬彩本想搬到醫院去看護她。因怕同學們的冷嘲熱罵，把她的心嚇冷了。雖然心里怜她，面子上也不願親近她。」《廬隱小說全集》，110-129쪽.

고 두려웠다. 창백한 얼굴과 눈물을 머금은 채 응시하는 네 개의 눈동자는 마치 神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듯 불안하고 우울했다.³⁸⁾

유부남 趙海能의 강박으로 인해 貞操를 잃게 되면서 모든 것을 상실한 松文은 순결 혹은 정절이라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윤리에 의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죽음과 같은 상황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사회·정신적 파멸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만 다를 뿐 직접적인 육체적 타살과 다를 바 없다. 분명 비난받아 할 사람은 趙海能和 청년이라는 남성들이지만 그들의 비도덕·비인간적인 행위와 배신은 묵인된 채 여성의 貞操에 대해 억압과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이다.

〈부친 父親〉 역시 가부장 체제의 봉건적 결혼제도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의 죽음이 나온다. ‘나’의 교활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와 원치 않는 결혼생활로 인해 폐결핵으로 삶을 마감한 生母 그리고 유부남인줄 모르고 나이 차이 많은 ‘나’의 아버지에게 속아서 결혼한 繼母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다. 生母의 病死와 繼母의 疾病은 모두 ‘나’의 아버지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남성 중심의 결혼제도와 가부장제에서 초래한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여성의 이혼과 경제적 독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廬隱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주체 의식을 지니고 봉건적 혼인제도와 대립하며 자유연애와 결혼을 추구하지만 가부장제의 인습으로 인해 자유연애와 결혼의지가 좌절된 채 정신적 파탄 상태에 빠지거나 생존을 거부하는 육체적 죽음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명 보다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는 남성중심의 성 윤리로 인해 파멸에 빠진 여성 인물 역시 생존을 거부하며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다.

2. 자기구원으로서 역설적 죽음

죽음에서 自然死란 늙고 쇠약하여 질병이나 노쇠 등으로 인해 저절로 사망에 이르는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삶의 종결로 많은 이들이 소망하는 형태이다. 반면에 自

38) 廬隱 〈淪落〉: 「滿屋裏沈寂着, 象死神將要來臨的森陰可怕, 一隻青白色的面孔, 四隻凝着淚光的眼睛, 彷彿在神的蓮座前, 待最後的判決般不安和憂鬱。」

殺은 인간 특유의 가능성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기 자신의 고유한 실존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살을 문학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인간 실존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내포한다.³⁹⁾ 그러므로 작품에서 죽음으로서 자살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자살은 현실과의 대결에 따른 주체의 좌절인 동시에 좌절을 인정하지 않는 주체의 강력한 저항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자살을 통해 저항과 극복의지를 표출할 만큼 비극적 현실의 적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해변 가 친구들 海濱故人〉에는 자유연애를 둘러싼 젊은 남녀의 다양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 있다. 주인공 露沙를 비롯해 雲靑, 宗瑩, 玲玉 등 여성인물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연애와 내적 갈등·고민들을 토로하고 있다.

네가 슬프고 힘들 때에는 나를 생각해. 만약 네가 스스로 그 삶의 길을 끊는다면 내 양심이 어떤 잔혹한 책임을 감당해야겠니? 露沙! 형식적으로는 내가 너의 쓸쓸한 생활을 즐겁게 해줄 자격은 없어.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내가 널 받아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래. 나의 뜨거운 정열을 너의 쓸쓸하고 공허한 마음과 함께 한다면 찬란하고 생기 넘치는 꽃이 피어날 거야.⁴⁰⁾

이 편지가 아마 나의 마지막 글일 수도 있겠다. 만일 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또 다시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글을 쓰려니 슬프구나,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이 부디 건강하고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⁴¹⁾

이들이 끊임없이 갈등·방황하는 원인의 바탕에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담겨 있다.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물음은五四전환기의 중국 지식인들

39) 칼 뢰비트·주정관 역 《자살은 인간이 가진 가장 빼어난 가능성: 어느 쓸쓸한 날의 선택, 자살》, (엘리트 2000, 2003), 27쪽 참조.

40) 廬隱〈海濱故人〉: 「你到极悲痛的時候, 也當爲我設想, 若果你竟自絕其生路, 我的良心當受何種酷責? 唉! 露沙! 在形式上, 我固沒有資格來把你孤寂的生活, 便熱鬧了。而在精神上, 我極誠懇的求你容納我, 把我火熱的心魂, 伴着你蕭條空漠的心田, 是她開出燦爛生趣的花。」《廬隱小說全集》, 56-109쪽.

41) 廬隱 〈海濱故人〉: 「此牘或即沙之絕筆, 蓋事若不成, 沙亦无心更老楮墨以傷子之心也! 臨書淒楚, 不知所云, 諸維珍重不宣!」

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정신적 표지이자 일종의 시대병이었다.⁴²⁾ 〈해변 가 친구들 海濱故人〉속 여성 인물들은 사랑과 삶에 대한 주체적 선택, 정체성에 대한 자각, 가부장제 윤리질서에 의한 억압 등 기존 봉건적 질서와 가부장적 가치체계에 도전하지만, 현실 앞에 무력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절망한다.

아, 나는 돌이켜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다. 매일 일기에 沅靑이 날 버렸다고 쓸 때마다 바로 세상과 이별하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렇다고 난 자살할 용기조차 없으니 괴로워하다가 죽을 것이다. 괴로워하다가 죽고 말 것이다.⁴³⁾

〈해변 가 친구들 海濱故人〉중 露沙는 유부남 연인에게서 상처받고 同性 친구들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받기도 하나 각기 자신들의 인생을 찾아 멀어져가는 현실에서 소외와 절망감을 느끼며 자살로 향하고 있다. 〈麗石의 일기 麗石的日記〉에서 麗石은 자유연애라는 낭만적 사랑을 추구했던 여성 인물이지만 주체적 연애가 좌절되자 그 대안으로 姊妹愛라는 다른 형태의 사랑을 모색하지만 현실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죽음의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에서 초래하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의지가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의 비애 或人的悲哀〉에는 육체·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亞俠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다. 그녀는 자발적 죽음인 자살을 통해 현실의 좌절·절망을 극복하고 이상향인 천국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여주인공 亞俠은 病魔에 시달리면서도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는 여성이다. 병원 입원 생활 중 간호사인 劉여사를 통해 기독교를 접하고 정신적 위안을 얻고자 일시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던 중 劉여사의 기도소리를 통해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면서 종교적 내세를 동경하기 시작한다.

42) 楊義 《中國現代小說史》 1, 214-220쪽 참조: 廬隱의 문학에 대하여, 자서전체 소설에서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개인적 불행은 통해 구사회·구예교의 억압과 암담한 현실을 결부시켜 반항적인 정서를 드러내었고, 개인의 비애감을 시대적 환경과 결부시켜 일종의 시대병으로 표출하였다고 평하였다

43) 廬隱 〈麗石的日記〉: 「唉! 我越回憶越心傷! 我每作日記, 寫到沅靑棄我, 我便恨不得立刻與世長辭, 但自殺我又沒有勇氣, 抑鬱而死吧! 抑鬱而死吧!」 《廬隱小說全集》, 45-55쪽.

그런데 지금 나는 오히려 약간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잠시 이 마음을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살아야 할 시간동안 힘든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 劉여사는 하얀 옷을 입고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소리로 기도했다. 간절한 목소리가 바로 나는 귀고막을 뚫고 깊숙하게 마음으로 들어왔다. 이 때 나는 불가사의한 힘을 느꼈다. 달빛이 신비한 색채를 가지고 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듯 했다. 이때 비록 확실하게 세상에 신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나는 오히려 믿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분명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⁴⁴⁾

이 후 亞俠은 인생에 대한 불안과 고민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劉여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영원한 안식처이자 고통 없는 낙원에 도달하길 희망한다. 현실 세계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겨운 공간이며 종교적 위로만이 그녀에게 힘을 줄 뿐이다. 이런 현실을 벗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이 세상은 단지 잠시 여행지에 머무는 것에 불과해.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心印, 文生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막론하고! 멀지 않아 모두 다 돌아가야만 하는 거지! 지금 만일 죽는다 해도 조금 앞당겨질 뿐이야.⁴⁵⁾

KY, 나는 벌써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버린 것 같아! 내가 북경모자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 劉여사가 내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가 말했지, 살았을 때, 선한 일을 하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곳은 영원한 낙원이라고, 한 사람도 고통스런 얼굴이 없다면 한 사람도 눈물 흘리지 않을 거라고. KY! 나는 결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방황하며 정처 없이 방황할 때에 신앙의 대상을 찾지 않을 수 없었지. 그래서 건강할 때에는 인간세상에서 길을 찾지만 했지만, 병들어 아플 때에는 바로 인간 밖의 세계에서 새로운 경계를 찾으려 했던 거야. ⁴⁶⁾

44) 廬隱 〈或人的悲哀〉: 「不過現在我却有些相信了! 因為我似乎知道眞理是尋不到, 不如暫且此心寄托于宗教, 或者在生的歲月里, 不至于過分的痛苦! /...../ 劉女士穿了一身白衣服, 跪在床前低聲的禱祝, 一種懇切地聲音, 只透過我的耳膜, 深深的侵進我的心田里, 我此時忽感一種不可思議的刺激, 我覺得月光帶進神秘的色彩來, 罩住了世界上的一切, 我這時雖不敢確定宇宙間有神, 然而我却相信, 在眼睛能看見的世界以外, 一定有一個看不見的世界了。」《廬隱小說全集》, 30-44쪽.

45) 廬隱 〈或人的悲哀〉: 「這世界不過是個寄旅, 不只我要回去, 便是你, 心印, 文生 — 無論誰? 遲早都是要回去的呵! 我現在如果死了, 不過太早一點。」

스스로 죽을 용기조차 없던 亞俠은 결국 호수로 뛰어들어 삶을 마감한다.病魔에 시달리던 그녀는 실존적 고통과 번민을 벗어나 영원한 낙원에 가기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삶에 절망한 亞俠이 고통과 좌절을 초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하길 원하는 곳은 천국·낙원이다. 이는 작가 廬隱이 학창시절에 접하였던 종교 교육과 관련 있는 것으로, 기독교적 영향이 반영된 태도라 할 수 있다. 廬隱은 자신이 경험했던 기독교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어린 시절 나는 예수께 의지하였다. 원래 철저히 못한 신앙이라 차츰차츰 무너졌다. 예수의 위대한 인격과 박애정신은 다른 사람들의 숭배를 충분히 받을만하며 내가 그를 인생의 모범으로 삼은 것은 결코 헛된 일은 아니다.⁴⁷⁾

작가 廬隱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 미션계학교에서 유년기와 청소년시기를 지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작가의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특수한 경험으로 어떤 방식이든 작가의 삶과 작품 가운데 그 영향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교회학교의 학생들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연령이고, 교회·장엄·기강·칭찬의 이상에 찬송가를 결합시켜 부르곤 하였기 때문에, 설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 지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태도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⁴⁸⁾

이렇듯 기독교는 廬隱의 생애를 포함하여 세계관·창작태도와 긴밀하게 관련을

46) 廬隱 〈或人的悲哀〉: 「KY, 我彷彿已經明白死是什麼了! 我回想在北京婦嬰醫院的時候看護婦劉女士告訴我的話了; 她說: 生的時候, 作了好事, 死後便可以到上帝的面前, 那里是永久的樂園, 沒有一个人掉眼淚! KY, 我并不是信宗教的人, 但是我在精神彷徨無着處的時候, 我不能不尋出信仰的對象來; 所以我健全的時候, 我只在人間尋道路, 我病痛的時候, 便要在人間之外的世界, 尋新境界了。」

47) 廬隱 〈我的宗教〉: 「在童年的時候, 我皈依了耶穌. 我本來不徹底的信仰, 便漸漸的趨于破產. 當然以耶穌那種偉大的人格, 博愛的精神, 很够得上人們的崇拜, 我就以他爲人生的模範, 并不算坏。」《廬隱文集》第3卷, 1689쪽.

48) 張愛玲 《張愛玲的文集4》: 「教會學校的學生, 正在容易受影響的年齡, 慣於把贊美詩與教堂和莊嚴、紀律、青春的理想聯系在一起, 這態度可以一直保持到成年以後, 即使他們始終沒有受洗禮。」(《張愛玲的文集》4卷, 安徽文藝出版社, 1992, 123쪽). 黃曉娟 〈從精神到身體〉: 《江海學刊》2005년 3기, 185쪽 재인용.

맺고 있다. 현실 속 인간의 삶은 여행에 불과하며 인간 누구나 죽음을 통해 낙원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다. 작품에서 여성 인물이 죽음을 거쳐 지향하는 곳은 고통을 초월하는 공간이며 그 곳은 유년기의 작가가 정신·육체적 상처를 위로받은 종교적 공간이다. 가부장적 현실과의 대립으로 인해 주체적 의지와 욕망이 좌절된 여성 인물들이 자살로서 도달하려 했던 이상향이며 작가의 종교적 체험을 반영한 곳이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발견된다.〈편지 한 통 一封信〉중 관찰자의 시선은 어린 소녀의 죽음을 암담한 현실로부터의 구원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정말 불쌍하구나!..... 세상이란 그야말로 비참하고 고통과 원망 가득 찬 지옥이 아니고 무엇일까! ...중략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해가 이 부서진 방 안을 비출 때 나약한 어린 양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이미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 인간지옥을 떠나 낙원을 향해 떠났기 때문이다!⁴⁹⁾

현실은 「더럽고 혼탁한 세상, 인간지옥」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어린 양 같은 소녀가 살 만한 곳이 결코 아니다. 「세상에서 돈이 부족하면 인간의 생활은 정말로 불행한 운명.(人們生活在世界上, 缺乏金錢, 實在是不幸的運命呢!)」이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서 실존적 삶의 가혹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절망적 삶으로 인해 고통 받길 원치 않는 작가 내면을 나타낸 것이다. 즉 살아서 온갖 수모와 시련을 겪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참담한 현실을 떠나는 것이 더 낫다는 의식의 반영이다. 당시 소외계층 여성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한 폭로와 함께 죽음을 통한 역설적 구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 궁핍한 삶에서 초래된 어린 소녀의 죽음

廬隱의 소설에는 돈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소녀들이 등장한다.

49) 廬隱 〈一封信〉: 「窮人真是可憐呢!.....甚么是世界, 簡直是一座慘愁怨苦的地獄!.....如此支持了一夜, 直到第二天的陽光重照到這個破屋子來的時候, 那微弱的小羔羊面上露着笑容, 因為她已經離開這污濁世界, 人間地獄, 到極樂園去了!」《廬隱小說全集》, 8-14쪽.

궁핍과 빈곤에 따른 인신매매, 축첩, 성적 유린 등 비인간적 세태로 인한 어린 소녀들의 비참한 죽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서쪽 창문의 비바람 西窗風雨〉에는 과중한 노동과 학대로 인해 삶을 마감하는 6살짜리 소녀 壽兒의 죽음이 드러나 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종으로 팔려와 매 맞는 것이 두려워 제 몸집보다 큰 빗자루를 들고 다니며 종일 일하는 불쌍한 6살 소녀의 고단한 삶을 고발하였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편지가 서풍에 의해 바닥 위로 휘날려 떨어지자 나는 그것을 주웠다. “壽兒가 토하고서 죽다.”라는 몇 글자는 흡사 누런 뱀이 내 영혼의 어느 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불쌍한 壽兒를 보고 있는 듯 했다. 이미 그녀는 하늘나라에 있는 어머니의 눈물로 6년간 세상에서의 오욕을 깨끗이 씻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예전처럼 인자하셔서 짧은 시간에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초월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세상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쉬지 않고 壽兒를 위해 기뻐하였다.⁵⁰⁾

어린 소녀의 죽음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서⁵¹⁾ 학대받았던 현실을 폭로하였다. 인신매매되고 굶주림과 중노동에 시달리던 현실에서 “인류는 그저 이기적인 벌레일 뿐(人類只是一個自私的蟲兒呵!)”, 자기보호 능력조차 없이 노동에 시달리던 어린 소녀에게 죽음은 차라리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구원일 것이다.〈편지 한 통—封信〉에는 외할머니의 약값 20元 대신 첩으로 팔려가 매 맞아 죽는 소녀 梅生의 죽음이 등장한다.

50) 廬隱 〈西窗風雨〉: 「桌上放着的信, 被西風吹得飄落地上, 我拾了起來, “壽兒一嘔而亡!”几个字, 仿佛金蛇般橫据于我灵區之中, 我仿佛看見那可怜的壽兒, 已經用她天上的母親的愛泪, 洗清她六年來塵夢中的傷污了, 上帝仍旧是仁愛的, 使她在短促期間內, 超拔了自己, 但愿從此不要再世爲人了!—我不住爲壽兒慶幸。」《廬隱小說全集》, 146-149쪽.

51) 廬在軾 〈The Chinese Recorder에 나타난 근대 중국의 혼인문제 인식 연구〉: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였던 레지스는 19세기말 중국여성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국 여성들의 상황은 비참하고 고생스러우며 멸시를 받고 있다. 여성의 각종 고난과 치욕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녀가 태어나서 일찍 죽지 않으면 거의 비천한 동물처럼 취급받고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中國史研究》 87집, 중국사학회, 2013.12), 219쪽.

몇 달 전에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梅生은 여전히 활발하고 천진난만한 여자 아이였잖니? 내 생각으로 너는 아마 그녀가 올해 겨우 15살 밖에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기억할거야;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 그녀에게 글을 가르쳐 주곤 했는데, 그녀는 아주 총명하고 검고 빛난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지. 너도 칭찬하지 않았었니? 나는 너의 눈썹미에 탄복했어. 사실 그녀는 천재이거든! 52)

梅生の 어머니는 소설 속 '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梅生은 총명하고 귀여운 소녀이다. 그러나 梅生の 외할머니 병 때문에 약값 20元을 陳씨집 만아들로부터 빌리면서 갚을 수 없게 되자, 梅生은 약값을 대신하여 陳씨 만아들의 첩으로 보내진다. 감쪽한 외모의 梅生을 질투한 본처의 무자비한 매질로 인해 결국 죽고 만다.

'엄마!...아파...하나님!' 아주 오랫동안 소리쳤는데도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녀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단지 높고 아득한 하늘 위에 하나님 밖에 없는 것 같았다! 울부짖는 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여전히 신음소리가 계속 이어졌다.그녀는 이미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 인간지옥을 떠나 낙원을 향해 떠났기 때문이다!53)

첩으로 팔려 간 梅生은 온 몸에 피멍이 들도록 구타당하고 돌보는 사람조차 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 경제적 궁핍에 처한 부모나 남편이 딸이나 부인을 매매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어린 소녀가 부모에게서 버려져 돈 몇 푼에 첩이나 민며느리로 팔려가거나 거래되는 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었지만 중국 사회 내부에서는 당연한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54) 소설에 묘사된 어린 소녀들의 비참한 죽음은 가족의 생계와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그녀들

52) 廬隱 〈一封信〉: 「前几个月, 你到我家里來, 梅生不仍旧是一个很活潑天真的小女孩嗎? 我想你總能記得她今年只有十五歲;每逢我有空的時候, 常常教她認字; 她很聰明, 一双漆黑明亮的眼珠, 你不是也稱贊過她嗎? 我很佩服你的眼光, 她實在是一个天才!」《廬隱小說全集》, 8-14쪽.

53) 廬隱 〈一封信〉: 「媽呀!痛.....天啊!」但是沒有人應她, 或安慰她! 若有只有那冥冥中的上帝罷了! 哀号的聲音, 漸漸微弱, 還余着些許斷續的呻吟聲,因為她已經離開這污濁世界, 人間地獄, 到極樂園去了!」

54) 盧在軾 〈The Chinese Recorder에 나타난 근대 중국의 혼인문제 인식 연구〉: 《中國史研究》 87집, 218-221쪽 참조.

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며 억압하였던 가부장적 질서와 의식에서 기인하고 있었으며, 소녀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당하고 있었다.

4. 폭력에 의한 정치·종교 활동가의 희생적 죽음

五四운동의 영향에 의해 촉발된 여성교육과 여성해방운동을 통해 각성된 많은 여성들은 자유와 평등, 개성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여성의 해방은 자신이 속한 사회 전체의 평등 즉 남녀의 차별, 계층과 계급의 차이, 빈부의 격차가 소멸된 사회만이 진정한 여성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 또는 종교적 신념을 위한 개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가을 비바람에 애태우다 秋風秋雨愁煞人>은 정치적 이상의 실현을 위한 혁명에 참여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秋瑾의 삶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중국 근현대사상 최초의 여권운동가이자 정치가인 秋瑾이 1907년 7월15일 “가을 비, 가을 바람, 근심에 애간장이 끊어지네.(秋雨秋風愁殺人)”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형당한 사건을 소재로 하였다.

마지막 죄수를 실은 수레의 여성 영웅이 나타나자, 더욱 길거리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해하였다. ‘여자가 혁명당을 만들다니— 이건 정말 천지개벽할 소식이군!’…… 전쟁은 계속되고, 나라는 날이 갈수록 엉망인데, 이 깊게 묻힌 영웅의 영혼은 또 어디에 깃들어 있는 것인지! 이상적인 공화국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⁵⁵⁾

가정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혁명에 투신한 그녀는 체포 후 극심한 고문에 시달리다 사형을 당한다. 마침내 秋瑾이 바라던 혁명은 성공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현실에 남겨진 것은 깨진 무덤 돌비석만이 그녀의 죽음을 기억할 뿐이다. 소설에서 혁명가 秋瑾의 죽음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다분히 회의적이고 인생무상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秋瑾의 죽음을 통해 당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정치적 참여를 반영하였고 여성해방운동과 혁명 활동을 개척한 여성혁명가의

55) 廬隱 〈秋風秋雨愁煞人〉: 「最後的囚車的女英雄出現了, 更使街上的人驚異, ‘女人也做革命黨, 這真是破天荒的新聞!’……兵鋒連年, 國是日非, 這深埋的英魂, 又將何處寄栖! 那裏是理想的共和國家?’ 《廬隱小說全集》, 185-189쪽.

형상을 부각시켰다. 이외에 〈만려 曼麗〉 〈눈보라에 상처받고 風欺雪虐〉 등의 작품에서 廬隱은 중국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비판하는 한편 이를 타개할 진정한 혁명가의 출현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모두들 마치 자신이 장래에 혁명공적을 세우고, 관직에 올라 재산을 모으고, 고급차를 타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마음에 품고서 거만하고 안일한 태도였다. 그야말로 완전히 안하무인격이었다.—이것이 설마 온 국민이 바라는 혁명이었던 말인가? 아! 나는 정말 고민했다.⁵⁶⁾

이 국면을 수습할 지혜로운 영웅은 어디에 있을까?.....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 그저 무서운 땅거미 속에서 배회하고 방황할 뿐이야.....나는 결국 여기에서 죽을지도 몰라!⁵⁷⁾

五四 이후 1926년 국공내부의 갈등과 대립, 1927년 4·12 쿠데타 등 급변하게 전개되었던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현실 정치를 향한 실망과 회의를 표시하는 한편 중국의 상황을 타개할 진정한 지도자의 출현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한편 〈눈물 흔적 餘淚〉에는 인간 사랑의 각성을 통해 정치·사회적 대립을 해결하려 했던 백(白)선교사라는 새로운 지도자 형상을 제시하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白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구할 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악 망상을 깨울 수 있기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의 친구들을 사랑하라 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이다.⁵⁸⁾

56) 廬隱 〈曼麗〉: 「大家都仿佛天下指日可定, 自己將來都是革命元勳, 作官發財, 高車駟馬, 都是意中事, 意態矯逸, 簡直不可一世—這難道說也是全民所希冀的革命嗎? 唉! 我真彷徨!」《廬隱小說全集》, 165-175쪽.

57) 廬隱 〈風欺雪虐〉: 「那裏有收拾殘局聰明的英雄?.....我到如今不會發現, 所以我只在可怕的夜幕中, 徘徊彷徨,也許我終要死在這裏!」《廬隱小說全集》, 161-164쪽.

58) 廬隱 〈餘淚〉: 「那么我們應當怎麼樣呢?」我不免懷疑着這麼問白教師, 她只流着淚說: 「這只有求上帝幫助我們, 用基督的名義喚醒他們罪惡的夢!因為基督是吩咐他的門徒, 愛他們的朋友, 和愛自己一樣!」《廬隱小說全集》, 327-335쪽.

혁명 내전의 참상을 목격한 修道院의 白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죄악 망상을 깨우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적십자 대원으로서 혁명전쟁에 참전한다. 전쟁터에서 무차별적 공격에만 전념했던 한 소년병은 白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수많은 殺傷을 뉘우치며 참회한다. 그러나 거리에 방치된 적군의 屍身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습하고자 수도원 밖으로 나갔던 白선교사는 적의 공격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종전 후 白선교사를 만나기 위해 수도원을 찾은 소년병은 白선교사의 죽음을 전해 듣고 생전에 그녀가 전했던 가르침과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한다. 廬隱은 白선교사의 희생과 소년병의 참회를 통해 전쟁의 참상과 인간성 파괴를 폭로하는 한편 사랑의 회복과 실천을 통해 현실의 갈등을 해결하려 하였다. 전쟁의 참혹함과 白선교사의 희생적 죽음을 대비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웃 사랑 정신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의 현실적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 인물로서 희생의 삶을 실천하는 白선교사 형상을 제시하였다.

IV. 나가기: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와 현실인식

지금까지 廬隱의 소설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서 작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양상을 지니는지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病死를 포함하는 自然死, 打殺과 살인, 사고사, 자살 등 인물의 죽음이 중심구조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봉건적 가부장 질서의 억압에 의한 죽음, 자기구원의 의지로서 역설적 죽음인 자살, 궁핍한 삶에서 초래된 어린 소녀의 죽음, 폭력에 의한 정치·종교 활동가의 희생적 죽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작품 속 인물들의 죽음은 대부분 여성 인물들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봉건적 가부장제 질서 아래 강제결혼, 매매혼, 축첩 등 억압적 현실을 견디지 못한 여성 인물들의 정신·육체적 죽음의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드물게 현실의 억압을 견디지 못한 여성 인물이 갈등의 해결책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비극적 상황이 발견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여성 인물들은 절망과 죽음을 강요하는 현실의 물리적 폭

력 내지 정신적 학대에 저항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참담한 삶을 숙명으로 수용하며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다. 廬隱은 여성 인물들의 죽음을 통해 봉건적 체제를 비판하는 한편 자살로서 현실을 향한 저항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인습과 제도가 자신들에게 강요한 운명과 불행한 삶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데, 자의적 죽음인 자살을 통해 저항을 표출하는 한편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자기구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비록 그 바탕에는 현실도피적 성향이 내포되어 있긴 하나 당대 중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한 억압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었다. 중국 사회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소외 계층에 해당되는 어린 소녀들의 죽음은 대부분 궁핍한 삶에서 기인하고 있었으며 주로 맞아 죽는 타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소녀들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그녀들의 희생을 당연시 여겼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죽음을 암담한 현실로부터의 구원적인 죽음으로 인식하기도 했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통해 곤궁한 현실을 탈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폭력 세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정치·종교 활동가의 죽음은 정치적 이상과 종교적 신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여성들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五四新문화운동 이후 각성한 많은 여성들은 진정한 여성해방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사회참여로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새로운 조국과 사회건설 과정에서 희생되는 여성 인물의 죽음으로 나타났으며 혁명 실상을 비판하는 한편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모순을 고발하고 진정한 혁명의 방법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고 있었다.

五四시기는 전통과 근대, 新舊가 공존하며 상호 충돌하던 혼돈기로, 이러한 시기에 삶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확고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사회 각 방면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과 불평등이 남아있는 현실에서 출로를 모색하고 자아실현을 완성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廬隱의 소설에는 봉건적 가부장 체제와 현실 세력과의 대립에서 초래되는 여성들의 희생적 죽음이 대부분이다. 정신적 파멸이 육체적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살로서 현실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죽음을 통해 도달하려 했던 낙원과 천국은 유년시기 중 기독교 미션학교에 다니며 접한 기독교 교육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死後 내세로서 천국을 지향하라는 점에서 선명한 종교적 색채를 보이고 있었다. 廬隱은

창작의 목적과 사명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른바 同情이란 바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아(大我)'의 情으로 개인의 득실에 구속되는 '소아(小我)'의 정과는 다르다. ... (중략)... 이 情이 바로 매우 위대한 동정이다. 모든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공유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 바로 문학의 생명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을 보면 마치 내 자신이 동일하게 받는 것처럼 자신이 똑같이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문학가는 진실로 사회의 선구자요 예언자로, 그 시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람들의 감정을 통일하여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59)

작가 廬隱은 현실 인식과 창작의 관계 다시 말해 현실의 고통 즉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간들의 일상적 고통과 눈물이야말로 바로 삶의 일부이며 동시에 현실 애착에 대한 반증으로 파악하였다. 廬隱 소설에 나타난 죽음에는 봉건 예교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작가의 체험적 요소가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실존적 삶에서 겪은 현실의 갈등과 고통이 다양한 죽음의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죽음은 단지 죽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관련된 현실 삶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 또는 타살을 막론하고 작가가 죽음을 자주 등장시킨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형상화를 통해 당대의 실존적 비극성을 전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며 이런 점에서 廬隱 소설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체험 혹은 1920·30년대 중국의 사회역사적 상황의 반영이 아니라 중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參考文獻】

肖鳳 編《廬隱傳》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2.

59) 廬隱 〈文學家的使命〉: 「所謂同情, 就是超於自身利害之外的“大我”之情, 與拘束於個人得失“小我”之情不同. (中略) 這個情便是極偉大的同情, 乃挾千萬人心靈深處共有的情感而喚起, 這種情感就是文學的生命, 所以看了別人受痛苦, 仿佛是自己受一樣.文學家誠然是社會的先驅者、預言家, 他與時代發生極密切關係, 他可以統一人們的感情, 並引導著趨向同一的目標去行動.」《廬隱文集》第3卷, 1570쪽.

- 肖鳳·孫可編《廬隱選集》天津，白花文藝出版社，1983.
- 錢虹編《廬隱選集》福建人民出版社，1985.
- 林偉民編選《海濱故人廬隱》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1.
- 廬隱《廬隱小說全集》時代文藝出版社，1997.
- 廬隱《廬隱文集》第3卷 時代文藝出版社，2001.
- 童慶炳·程正民《文藝心理學教程》北京，高等教育出版社，2001.
- 盧云峰著《中國現代女性文學專題研究》遼寧大學出版社，2006.
- 楊義《中國現代小說史》I 人民文學出版社，1986.
- 유금호《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연구》동천사，1988.
- 이인복《죽음과 구원과 문학적 성찰》성요셉출판사，1989.
- 陳思和，中國현대문학연구회 역《20세기중국문학의 이해》청년사，1995.
- Calvis.S.Hall, 백상창 역《프로이트 심리학》문예출판사，1996.
- 전중제·손창희 주편《인물로 보는 중국현대소설의 이해》도서출판 역락，2002.
- 칼 뢰비트·주정관 역《어느 쓸쓸한 날의 선택, 자살》엘리트2000，2003.
- 박중숙《한국 여성의 눈으로 본 중국현대문학》신아사，2007.
- 黃曉娟〈從精神到身體〉;《江海學刊》2005年 3期.
- 張亞麗〈談廬隱的創作與人生〉;《遵義師範學院學報》第6卷 第2期 2004.6.
- 陳靜〈基督精神與廬隱小說的女性意識〉;《淮海工學院學報》第8卷 第1期 2010.1.
- 박중숙〈재조명되는廬隱의 소설〉;《중어중문학》26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0.
- 盧在軾〈The Chinese Recorder에 나타난 근대 중국의 혼인문제 인식 연구〉;《中國史研究》87輯, 중국사학회 2013.12.
- 盧在軾〈근대 중국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연구〉;《震檀學報》113호 2011.
- 이은희《廬隱의 글쓰기 연구:《海濱故人》을 중심으로》승실대 석사논문 2006《美文·大家選》, 2010년 14기.

【中文提要】

廬隱是五四時期接受新式知識教育的一位重要的女性作家，是極爲悲情的女性作家。她的悲苦的身世以及悲哀的創作風格讓人感到沉重和蒼涼。廬隱的很多小說都涉及到死亡這一敏感的話題，死亡意識始終貫穿廬隱的創作過程。苦難的身世和對生命的體驗，讓廬隱感受到人生的悲觀與缺陷，感受到生活的艱辛與冷漠。愛與生、愛與死在廬隱筆下得到另一層的闡釋，讓我們感受到廬

隱悲觀的的人生態度以及在悲哀中進行精神家園重建的韌性。廬隱創作的死亡意識的形成，就其原因來說，則主要有兩個方面：(一)個人不幸的身世影響與家道中落飽嘗寄人籬下之苦。(二)作家個人的悲觀厭世的人生觀，主要是時代的烙印與叔本華悲觀哲學思想的影響。廬隱創作的死亡意識在她的作品中有着多种詮釋。：(一)在現實社會的重重壁壘面前或徘徊猶疑，或頭破血流，最終遭受到死亡(二)在精神上找不到人生出路，對自己的生存現狀充滿苦悶，要探求出人生的究竟，以自殺來尋求心靈的解脫。(三)社會對弱勢階層的無視造成的死亡(四)具有犧牲精神的政治·宗教家的死亡。二十年代，社會本身處在動蕩之中，廬隱也參與了不少學生運動，目睹社會最底層的民衆之苦，那種草菅人命的社會確實讓廬隱憤憤不平，對生活不再憧憬，她在悲憫的同時，變得格外的厭世和恨世。廬隱是五四時代最具个性化色彩作家之一，她在悲苦的精神家園不斷舐舐心靈的傷痛，沉迷在情感的漩渦躑躅而行，她的生活軌迹如同拋物線般跌宕起伏。她以自己敏感的心感受生活感受命運，從沒有泯滅自己那顆爭取女性解放的火熱的心腸。她以自己生命的體驗闡釋上世紀二三十年代女性解放道路的曲折，並試圖進行精神的超越。

【主題語】

중국현대문학, 廬隱 소설, 오사여성작가, 죽음, 여성의식, 현실인식

中國現代文學, 廬隱小說, 五四女作家, 死亡意識, 女性意識, 現實認識

Modern Chinese literature, Lu Yin's Novels, The May Fourth female writers, death consciousness, Feminine Consciousness, visioning reality

투고일: 2015. 7. 15 / 심사일: 2015. 7. 20~8. 5 / 게재확정일: 2015. 8. 10